

# 먹구름 낀 기업들, 출판지원은 가뭄

## 학술연구 및 출판지원 대부분 예산동결 ... 제작비 상승으로 실질적 삭감상태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경제와 문화의 상호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자본의 축적과 문화적 공공 서비스 재화의 재생산을 위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회발전의 초석이 되는 학술 발전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학술연구 지원 재단의 올해 예산은 대부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단의 지원은 국내의 학술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또한 학술연구 지원의 결과물을 '총서'로 발간하여 출판계에도 나름대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학술서의 가치에 비해 시장성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책을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최근들어 출판 여건이 악화되면서 출판사는 더욱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재단의 학술서 출판지원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 대우·아산·서남 등 인문·사회과학서 지원

국내에서 학술연구 및 출판지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대우재단(이사장 이석희, 대우그룹 출연)은 그동안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번역·공동연구를 위해 50억원 이상 지원했다. 올해의 지원 예산은 8억3천만원. 그중 5억원을 출판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술연구지원비로 사용한다. 학술연구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고대승 과장은 "경기침체로 사업비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국내 학술진흥을 위한 지원이라는 설립취지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예산을 예년 수준에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재단은 '대우학술총서' 368종을 발간했다. 올해는 40여 종을 발간할 계획이며, 10월경에 400종 출간 기념회를 기획하고 있다. 출판지원비를 실제작비 개념으로 책정한 재단은 학술연구지원의 모든 결과물을 민음사와 계약 출판하고 있으며, 종당 550부씩 구입해 주고 있다.

계약을 맺고 있는 민음사측은 최근 출판 제작비가 40% 가까이 상승함에 따라 출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우학술총서'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지씨는 "총서의 대부분은 대학원생이 이용

가치에 비해 시장성이 없는

학술서. 현실적 어려움에

제작비 상승 문제까지 겹쳐

출판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사회발전에 초석이 되는

학술서의 발간은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 및 민간단체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학술연구 및

출판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할 정도로 고급 출판물이기 때문에 구매층이 낮고, 판로를 개척하기도 힘든 입장"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인문·사회과학 및 각종 학술연구를 지원해온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이사장 정주영, 현대그룹 출연) 역시 기업으로부터 전입금이 줄어들어 사업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원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3억원 정도. 그러나 총서류 발간을 위한 사업비는 오히려 늘려잡았다. 다른 분야의 지원을 줄이더라도 연구 결과물을 출간하기 위한 예산은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 학자의 저술만을 출간하므로 학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다.

학술연구지원을 관리하는 원치용 부장은 "출판제작비의 상승을 감안하여 출판사와 12% 인상하는 선에서 재계약했다. 그래도 출판사측에서 보면 지원비가 실질적으로 줄어든 형편"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동안 '아산재단 연구총서' 41종, '아산재단 보고서' 43종을 펴낸 집문당(대표 임경환)은 올해 30여 종을 출간할 계획이다. 총서류는 750부, 보고서는 500부를 구입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한 집문당의 임사장은 "제작비 상승에 따른 도서가격의 연쇄적 상승으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일반 독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 학술총서류인데, 앞으로 더욱 어려울 전망"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집문당은 그동안 영화진흥공사와도 계약하여 '영화이



기업재단의 지원으로 출간된 책들.

론총서'를 31집까지 만들었으나 97년 말부터 중단된 상태이다. '영진공'에서 원고만 받아 출판해오던 '한국 시나리오 선집'도 13집을 내고 중단했다.

최근에 '동양학총서' 발간을 지원하기 시작한 서남재단(이사장 이관희, 동양그룹 출연)은 올해 예산을 1억원이 조금 넘게 책정했다. 동양학 연구 및 번역, 그리고 학술자료 총서를 출간하기 위해서 문학과지성사와 종당 500부를 구입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 매년 5권 정도씩 출간할 계획이다.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온 성곡학술문화재단(이사장 홍승희, 쌍용그룹 출연)은 올해 4억5천만원의 지원할 예정이다. 그 중에 연구논문집 발간비용으로 8천5백만원을 사용한다. 그동안 28집의 총서를 발간했지만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향산·성천재단 등도 총서류 발간

지난 17년 동안 신과학총서 발간을 지원해온 향산재단(이사장 이성범, 범양그룹 출연)은 53종을 발간했다. 올해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종을 발간할 예정이다. 첨단 신과학 분야라는 성격 때문에 대부분 번역서를 발간해온 재단은 환율상승에 따라 어

려움이 크다.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로 3천불 정도 지급했지만 올들어 환율이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명저가 아닌 이상 출판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고문직을 맡고 있는 김용정 교수(동국대)는 "출판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타개하면서 계속 총서류를 발간하기 위해 국내 학자의 저서 발간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분야의 연구출판을 지원해온 과학문화재단(이사장 조규하)은 올해 예산을 확정하지도 못한 상태이다. 지난해는 3억원을 들여 11종의 총서류를 출간했지만 올해는 예산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따라 공을 들여 기획해왔던 고전과학과 첨단과학 시리즈를 발간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동서양 고전의 연구출판을 지원해온 성천문화재단(이사장 류달영)은 그동안 15종을 자체출판했으며, 올해는 5종을 발간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의 연구를 위해 3억원을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현암사에서 출간하기도 했던 재단은 올해 출판비용으로 1억원을 확정했다. 예산 자체가 줄지는 않았지만 자체출판에 따른 제작비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초과학 분야를 지원해온 롯데장학

어려울 때일수록

# 생각나는 친구

호황이라고 특별히 잘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불황의 그림자는 출판계에만  
늘 짙게 드리워집니다.

이렇게 어렵고 답답할 때일수록  
좀더 효율적인 전문 인력으로서  
저희가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연'은 단행본의 레이아웃과 교정에서부터  
잡지, 아동물, 카탈로그 등 디자인 개념이 요구되는  
각종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괄 작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도 만만치 않다고 자부합니다.



**三現編輯室** SINCE 1989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 549-6883~5 팩 스 : 549-6877  
천리안 ID : SAMYEUN

재단이 3억원, 인문 사회과학 분야를 지원해  
온 두산그룹의 연강재단이 이와 비슷한 수  
준에서 예산을 책정했다. 이밖에도 몇몇 기  
업 재단들이 학술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어려움에 직면한 정부 산하 재단들

한편, 정부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재단은  
아직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국내 학술연구 지원의 메카인 교육부 산  
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김종운)과 과  
학기술처 산하 한국과학재단(사무총장 박진  
호)은 당분간 지난해에 준하는 사업을 시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난  
국과 산하 단체의 규모 축소라는 한파가 겹  
쳐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일년에 350억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학술연구에 지원하는  
비율은 60%에 가깝다. 그 중에서 '학술진  
흥재단 번역총서' 발간에 지원하는 금액은  
1억1천만원이다. 전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번역총서의 지원은 일년에 10건, 10개  
분야별로 나눠 2권씩 추천을 받아 그중 1권  
을 번역대상물로 정하고, 역자를 선정하여  
번역을 의뢰한다. 번역이 끝나면 역자가 출  
판사를 정해 출판하고, 재단은 종당 150부  
씩 구입해 준다.

1500억원 이상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과학재단의 출판 지원은 더없이 인색하  
다. 전체 예산 중에서 연구비 지원은 4%정  
도. 그 중에 포함도 되지 않는 별도의 사업  
으로 '과학기술신서'를 출판한다. 일년 동안  
과학기술신서와 외국의 첨단기술서 5종을  
번역 출간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은 3천5백만  
원이다. 번역물은 한국경제신문사와 계약 출  
간한다. 제작비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종당  
1200부를 구입해 주는 것이 계약조건이다.  
그러나 저작권 사용료의 인상으로 주어진  
예산마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으로 예  
상된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미뤄볼 때, 두 재단의  
총서류 발간사업 지원은 구색맞추기에 불과  
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또 대부분 전  
문서적이기 때문에 일반 독자와는 거리가  
있다. 첨단학술서가 중심이기 때문에 활자화  
되는 동안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술발전의 메카라  
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

### 학술서 발간 지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

미국에서 <문화를 위한 기업인 모임>을 만  
든 록펠러는 '기업과 문화,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파트너십'을 강조해 기업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했다. 우리나라도 문화적 공  
공재화의 재생산과 학술발전을 위해 투자하  
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확고한 문  
화적 의식없이 투자자를 위한 가시적 행사  
에 치중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거품이 조장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이 경제가 어려워지자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부터 줄이고 있다. 학술연  
구 지원사업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문화산업 발전과 기술 진보를 위한 투자 없  
이는 사회발전을 꾀할 수 없다. 서울대 장희  
익 교수는 "문화발전을 위한 투자는 손익계  
산을 앞세워서는 안된다. 어려울수록 사회발  
전의 초석이 되는 문화와 학술분야에 투자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학술진흥의 뿌리는 곧 출판에 있음을 강  
조하는 목소리도 이 시기에 더욱 설득력 있  
게 들린다. 김경희 회장(지식산업사)은 "우  
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인문 사  
회과학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한 까닭으로,  
생각하는 백성을 육성하지 못한 결과이다.  
의식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책 읽는 분위  
기를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 또는  
민간단체들이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출  
판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학술총서류 발간을 위한 지원은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는 투자는 아니다. 그러나 언  
젠가는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재  
화로 재생산될 것이다. 출판계 역시 경제가  
어려운데 재단이 예산을 줄이지 않은 것만  
도 다행이라고 위안할 일은 아니다. 지금 어  
렵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해  
서는 시련의 악순환이 기다릴 뿐이다. 재단,  
출판계, 그리고 독자 모두에게 미래를 바라  
보는 안목이 절실히 요구된다.

— 오완진 기자